

2024년 전반기 북·러 군사협력 동향

조남훈 |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 chonh@kida.re.kr

지난 2024년 6월 19일,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열렸다. 이는 지난 2023년 9월 12일, 김정은의 러시아 보스토치니 우주기지 방문에 대한 푸틴의 답방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평양 정상회담 결과, 양국은 북·러 군사동맹 복원에 합의하였다.¹⁾

북한과 러시아 전신인 구소련 간 최초의 군사동맹조약은 1961년 7월 6일 모스크바에서 체결된 ‘조소동맹조약’이다.²⁾ 그런데 이 조약의 가장 명백한 특징은 양국 간 자동 군사개입을 명시한 것이다. 즉, 이 조약 제1조는 상대국이 전시 상태에 돌입하면, 상대방에 군사 및 기타 원조 등을 즉각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평시에 양국 간의 기술 및 문화 교류, 경제 원조의 제공 등도 규정하고 있다. 당시 북한은 구소련을 포함한 사회주의 국가들과 ‘우호 가격제’를 적용한 구상무역을 실행하였는데, 북한은 이를 활용하여 필수 원자재와 원료 등을 국제 가격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조달하여 경제발전에 투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독특한 ‘조·소 관계’는 1991년 소련의 붕괴와 러시아의 등장 이후 바뀌게 되었다. 구소련을 계승한 러시아가 북한 대신 한국과 관계 증진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1996년 9월 10일에 조소동맹조약은 폐기되었다.

하지만 폐기되었던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동맹이 지난 6월에 복원된 것이다. 지난 6월 북한과 러시아는 ‘포괄적인 전략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하였는데, 북·러 군사동맹의 근거로 제시된 것은 조약 제4조이다. 즉, 제4조에는 “쌍방 중에 어느 일방이 개별적 국가 또는 여러 국가로부터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1) 『연합뉴스』, 「북러 '전쟁상태' 처하면 지체없이 군사원조 제공'...조약 전문공개(종합)」, 2024. 6. 20.

2) 정식명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련맹 간의 우호, 협조 및 호상원조에 관한 조약”이다.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한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조소동맹조약’ 제1조의 ‘... 조약 체결 일방이 어떠한 국가 또는 국가 연합으로부터 무력 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체약 상대방은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온갖 수단으로써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라는 규정과 거의 유사하다.

이 같은 조약 체결에 따라 향후 양국 간 관계가 크게 호전될 전망이다. 그런데, 과거 북한과 구소련 간 협력의 핵심은 무기 및 군수산업 분야였다. 구소련은 북한의 군사 능력 구축을 위하여 다양한 무기를 북한에 제공하였고, 무기획득을 위한 연구개발 및 생산 능력 등을 제공하였다. 당시에 북한이 획득한 상당 무기체계가 구소련 기술 및 기술도면 등에 기초한 역설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이러한 관계를 증명한다.

현재 북한 상황은 당시와 유사하다. 북한은 핵 분야에서 핵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실질적 핵무장을 하였으나, 재래식 무기 분야에서는 기술 부족으로 첨단 재래식 무기를 제대로 생산하지 못한 채, 그 능력에 있어서 한국에 뒤처지는 실정이다. 북한으로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재래식 무기와 그 관련 기술 획득이 절실한 형편이다.

하지만, 이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핵 개발에 기인한 유엔 및 여러 국가의 대북제재 때문이다. 여러 차례에 걸친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의 무기 수입이 금지되어, 북한은 러시아나 중국에서 재래식 무기를 수입할 수 없다. 또한, 관련 기술을 획득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그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 러시아 전쟁의 장기화와 그로 인한 러시아의 무기 부족 사태는 북한에 황금과 같은 기회를 제공하였다. 그 어떤 국가도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국제제재를 받는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지어 중국조차도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러시아가 기댈 수 있는 국가는 상당한 무기 생산 능력을 보유한 북한밖에 없었는데, 러시아는 자국이 승인한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를 어겨가면서 2023년부터 122mm 및 152mm 포탄 등을 북한에서 수입하였다.

이런 러시아의 대북 무기 수입이 2024년 6월의 북·러 군사동맹조약 체결 이후에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북한과 러시아가 군사동맹조약을 맺음으로써 무기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사실 북한의 대러시아 무기 수출은 2024년 들어서 조금 주춤해진 듯하다. 과거 대러시아 무기 수출에 주로 활용되던 해상 항로를 통한 컨테이너 운반 활동이 상당히 감소했기 때문이다. 미국 CSIS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2023년 4분기 경 북한 나진항에서 러시아 두나이항으로

운반되는 컨테이너 수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³⁾ 하지만, 2024년 들어서 이러한 활동은 상당히 위축되었다. 일부 언론은 NK뉴스를 인용하여 북·러 간 해상교역에 주로 이용되던 레이디 R, 앙가라, 마리아 1 및 마리아 등의 선박 활동이 2023년 12월 20일 이후에 거의 중단되었으며, 해당 선박 일부의 선박 신호가 선박수리소에서 잡히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⁴⁾

물론 이런 상황이 반드시 북한의 대러시아 무기 수출 감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북한이 해상 운송수단 대신에 철도 등의 육상 수송수단을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만약에 물량 수출 감소가 사실이라면 이는 원자재 부족에 의한 북한 내 생산 제한이 그 원인일 수 있다. 아니면 러시아의 반대급부 제공 미흡에 따른 북한의 불만 때문일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북한이 요구하는 핵심 군사기술을 러시아가 제공하지 않아서 북한이 상당한 불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상선박을 통한 북한의 대러시아 무기 수출 축소는 2024년 4월 이후에 다시 호전된 듯하다. 레이디 R로 보이는 선박이 2024년 4월과 5월에 북한 나진항에서 화물 선적 활동을 다시 시작했기 때문이다.

북·러 정상회담은 북한의 무기생산을 독려하고, 교역 조건에 대한 북한의 불만을 무마함으로써 무기를 북한으로부터 계속 공급받으려는 러시아 속셈의 결과라고 추정할 수도 있다. 김정은의 계속되는 군수공장 현지지도 활동이 이러한 가설을 뒷받침할 수 있다. 지난 2020년에서 2022년 사이에 매년 0~1회에 불과했던 김정은의 군수공장 현지지도 활동은 2023년에 9회, 그리고 2024년 5월까지 6회로 상당 폭 늘어났다.⁵⁾ 즉, 2002년 이후 2024년 전반기까지 군수공장 생산에 대한 김정은의 관심이 상당히 증대된 것인데, 대러시아 수출 무기체계 생산을 위한 김정은의 무기생산 독려가 현지지도 증가의 원인 중 하나라고 추정할 수 있다.

최근 북한은 미사일 개발 분야에서 상당한 실적을 올리고 있다. KN-23, KN-24 등의 미사일을 개발하여 배치하였으며, 240mm 신형유도방사무기의 시험발사도 성공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런데 최근에 개발 성공한 이러한 무기체계 중 일부가 우크라이나 - 러시아 전장에서 발견되고 있다. 2024년 1월 2일, 영국의 무기 분석기관인 “분쟁군비조사(Conflict Armament Research)”는 우크라이나 하르키우(Kharkiv) 지역에서 잔해로 발견된 러시아 발사 탄도미사일이 북한의 KN-23(화성-11A) 또는 KN-24(화성-11B)라고 결론지은 바 있다.⁶⁾ 그렇다면 위의 무기체계는 북한이 비교적 최근 개발에 성공한 무기체계로서 우크라이나 - 러시아 전장에서 실제로 사용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는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무기

3) CSIS, “Activity at Najin Points to Continued DPRK-Russia Arms Transfer,” Beyond Parallel, Dec. 8, 2023.

4) 『연합뉴스』, 「북, 러 무기공급 재개했나? ... 나진항서 러 화물선 다시 포착」, 2024. 3. 13.

5) 통일연구원, 「김정은 공개활동 보도분석 DB」 (<https://www.kinu.or.kr/nksdb>, 접속일: 2024. 6. 15).

6) Conflict Armament Research, “Documenting a North Korean Missile in Ukraine,” Ukraine Field Dispatch, Jan. 2024.

수출의 반대급부를 챙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기 운용시험 장소의 확보를 통해서 자국 무기체계의 실전 테스트 및 업그레이드 기회 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런 기회 확보는 북한이 최근에 개발한 240mm 신형방사포탄에도 적용될 수 있다. 즉, 240mm 신형방사포탄은 이제 막 개발시험평가가 완료된 듯이 보이는 무기체계인데, 만약에 운용시험평가가 실제 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면 이는 개발된 무기체계의 실전배치를 앞당기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240mm 신형방사포탄의 대러시아 수출은 앞서 언급한 122mm 및 152mm 포탄의 수출보다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122mm나 152mm 포탄과 달리 러시아가 240mm 신형방사포탄을 발사할 수 있는 마땅한 발사 플랫폼을 보유하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의 240mm 방사포는 구소련의 240mm BM-24 방사포를 개조하여 개발한 것이다. 즉, 북한은 구소련의 방사포를 개조하여 M-1985, M-1989 및 M-1991 등을 개발하여 부대에 배치하였다. 따라서, 러시아의 발사 플랫폼을 사용해서 북한의 240mm 신형방사포탄도 발사할 수 있을 듯이 보인다. 하지만 이는 불가능하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러시아가 240mm 방사포를 폐기했고, 그 대신 사거리 확장형인 220mm BN-27 우라간과 300mm BN-30 스메르쉬 등을 주력포로 사용해서 240mm 방사포탄 발사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북한의 240mm 신형방사포탄의 발사를 위해서는 포탄 유도를 위한 통제 모듈이 필요한데, 러시아가 그런 모듈을 보유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240mm 유도방사포탄의 대리 수출은 포탄 그 자체만으로는 소용이 없고 발사 플랫폼이 함께 수출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작년에 우크라이나 - 러시아 전장에 배치된 북한산 포탄과는 달리 240mm 신형유도방사포탄의 전장 배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국제사회의 관심은 북한의 대러시아 수출 품목만이 아니라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하는 물품에도 쏠려 있다. 러시아의 반대급부 제공이 북한의 무기 능력 발전만이 아니라 경제 호전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현재 거론되는 반대급부는 식량, 석유와 같은 에너지, 원자재, 중간재, 첨단 무기 및 경화 등이 있다. 또한, 미사일 및 우주 관련 첨단 군사기술이 제공됨으로써 북한의 WMD 능력 발전에 공헌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중 어떤 종류의 반대급부가 북한에 제공되는지에 따라 북한 및 한반도 정세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다를 수 있다. 그 결과, 이에 관한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

러시아는 북한의 무기 수입을 금지한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였다. 하지만, 러시아는 한국과의 관계 및 한국의 대우크라이나 공격무기 공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서 한반도 정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핵무기 관련 기술 이전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지는 않을 듯하다. 하지만, 지금의 러시아 태도가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알 수 없다. 러시아의 불법적인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조와 더불어 북한의 무기 수출 억제를 위한 한국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형편이다.

참고문헌

『연합뉴스』, 「북리 ‘전쟁상태 처하면 지체없이 군사원조 제공’…조약 전문공개(종합)」, 2024. 6. 20.

『연합뉴스』, 「북, 리 무기공급 재개했나?…‘나진항서 리 화물선 다시 포착」, 2024. 3. 13.

CSIS, “Activity at Najin Points to Continued DPRK–Russia Arms Transfer,” Beyond Parallel, Dec. 8, 2023.

Conflict Armament Research, “Documenting a North Korean Missile in Ukraine,” Ukraine Field Dispatch, Jan. 2024.

〈웹사이트〉

통일연구원, 「김정은 공개활동 보도분석 DB」(<https://www.kinu.or.kr/nksdb>, 접속일: 2024. 6. 15).